



중공학자의 사회주의 비판 강연집 方勵之의 「我正在寫歷史」

— 중앙대 사학과 權重達교수

지금 번역중

얼마 전 자유중국의 두 기자가 최초의 중국방문을 단행했다. 세계의 눈길을 끈 이 방문에서 기자들이

만나본 사람 중의 하나가 方勵之라는 인물이다. 그는 중공정부로 보면 목에 가지같은 존재, 반체제인사로 유명하다.

중앙대 사학과 權重達교수(46)는 요즘 방려지의 「我正在寫歷史」(가제·나는 역사를 쓰고 있노라)를 번역하고 있다.

“제목으로 보아 마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사건 중 의미있는 것만이 역사로 남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방려지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려지는 원래 북경대 물리학과 교수. 그는 ‘연구하는 일이란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라 믿고 ‘정치적인 이유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늘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문화대혁명 때 사상불온자로 숙청돼 10여년간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학문에 대한 그의 애착은 대단해서, 이때 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전공을 천체물리학으로 바꾼다. 4인방 시대가 끝나자 그도 복권이 되어 과학기술대학의 부교장에 취임하는데, 이때부터 천체물리학에 관한 훌륭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중공학자로는 처음 미국의 뉴튼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이 식은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회체제의 불합리한 모습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라 느껴져 이런 점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컨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스웨덴은 노동자·농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중공은 평등을 전제로 잘 사는 사람까지 노동자·농민수준으로 끌어내려 모두 못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지금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비판입니다.”

그는 이런 내용의 강연을 수없이 해오다 다시 부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다고.

이 책에는 위와 같은 방려지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강연원고를 골자로, 그의 부인과 다른 교수가 쓴 방려지評이 실려 있다. 대만에서 9월1일 출간된 이 책은 홍콩에 거주하는 방려지의 한 친구가 원고를 입수한 뒤 미국인을 통해 대만에서 출간되게 된 것. 원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수차례 방려지와 서신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았다.

權교수는 대만에서 6년간 수학을 했고 박사학위도 그곳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대만의 출판 소식은 빠르게 접하는 편. 이 책도 출간과 동시에 입수해 막바로 번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방려지의 말에는 민주, 자유, 진리, 학문 같은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그가 추구하는 진리에서의 열정은 우리 사회에도 타산지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경순 기자



대륙철학 중심의 현대철학총서 「서광철학강의」 전30권

— 철학서적 전문 曙光社

지금 제작중

모든 학문을 깊이 파고들면 결국은 철학으로 귀착된다고 한다. 10년 동안

외국으로 철학서적만을 출판해온 曙光社(대표 金信嫻). 리프린트로 시작, 지금은 75종이 넘는 철학서적들이 이곳에서 발간되었다.

서광사는 이번에 첫 기획으로 현대철학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서광철학강의」로 발간될 이 시리즈는 대륙철학을 중심으로 현재 독일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들만을 모았다.

“서양철학의 수용이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철학강의 교재로 쓰이는 기본적인 철학서조차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나마 기왕에 나온 몇몇 철학서조차 영미철학 위주의 철학서들 뿐입니다. 현대 서양철학의 여러 문제가 유럽에 연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용된 역사 역시 대륙철학이 영미철학보다 더 오래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체계적인 대륙철학 중심의 철학서적 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철학이 영미철학에 비해 소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권 안에 있는 우리의 언어상의 제약 때문일 것이라고 김사장은 말한다.

이 시리즈는 현재 독일에서 출판되고 있는 ‘다름슈타트 총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거기다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행위철학’ ‘환경철학’ ‘철학교육법’ 등을 총망라하여 서양철학의 여러 분야가 가능한 한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한다. 손동현교수(성대), 이기상교수(외국어대), 이삼열교수(숭실대),

이태수교수(서울대) 등 각 전공분야별로 선정된 4명의 편집위원이 원저를 고르고 그 분야에 맞는 역자를 선정하였다고.

“번역은 그저 말을 옮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말 속에 담긴 사상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철학서적일 때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영어권에 치우쳐 유럽쪽의 언어보급이 그리 넓지 못한 상태여서 번역진의 선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해당 외국어에 능숙할 뿐 아니라 해당분야를 전공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춘 분들만이 번역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편집장 주상희씨(30)는 번역진은 반드시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해당분야 전공자’들만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86년 말에 기획에 착수한 이 시리즈는 내달초에 첫권으로 「실존철학」(원제: Einführung in die Existenzphilosophie, F. Zimmerman 저/이기상 역)이 나온다. 장기계획을 세워 1990년에 가서야 총 30권이 모두 완간될 예정인데 낱권으로 판매, 관심있는 분야만을 골라서 사볼 수 있게 하겠다고. 주로 철학과 학생들에게 강의교재로 많이 이용되겠지만, 서양철학의 기초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대륙철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1년 전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해오고 있는 김사장은, 철학책은 원래 날개 돌친 듯 팔리는 책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오랫동안 팔리기 때문에 당장의 판매량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긋함을 보인다. — 최윤희 기자